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박근혜'에 대해 쓰는 마지막 글

이 칼럼을 연재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여러 번 썼다. 이번이 박근혜에 대한 마지막 글이 되기를 바란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오직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었던 모양이다. 첫째는 '아이 돌로 남아 있는 일'이다.

시중에 떠돌던 '어르신 세대는 박근혜를 아이유쯤으로 여긴다'는 농담이 결코 농담만은 아니었다.

화사한 화장, 흐트러지지 않는 육영수 머리, 때깔 좋은 패션, 화려한 한복'을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박근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둘째는, '비밀을 감추는 일'이다. 최순실 라인을 숨기는 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숨기는 일, 최태민과의 관계를 숨기는 일, 육영재단 비리를 숨기는 일, 영남대 재단 관련 비리를 숨기는 일, 피부관리를 숨기는 일, 약물 사용을 숨기는 일 등.

셋째는, '최순실-정유라의 소원을 풀어 주는 일'이다. 박근혜 공약의 구호였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나'가 '박근혜'만이 아니라 '최순실'이었고 '정유라'였다는 시중의 비판이 고대로 들어 맞았다.

박근혜의 머릿속에 이렇게 '사적 어젠다'가 자리 잡고 박근혜의 행위를 지배하고 박근혜의 말을 창조해 내는 사이에, 박근혜는 국민을 완벽하게 속여 왔다.

서 낮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박근혜를 두고 '국정 리더십 운운' 할 필요조차 없었던 일이다.

박근혜, 당신에게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 시대 리더십'을 고민해 왔던가 자괴감이 든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의료칼럼

마른 기침



강 채 미 발달내무한의원 원장

는 환자들의 경우 원인별 치료를 하지 못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기질적 원인을 분류해서 치료하기보다는 환자의 체질과 체반 상태를 파악해 유기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마른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른기침의 원인을 기가 잘 돌지 못하고 폐 속의 진액이 마른 것에 두었다. 폐 속의 진액이 마른 이유는 바로 담음화사(痰飲火邪)라고 지적했는데, 바로 화음증의 원인이고 이 때문에 폐의 진액이 말라 마른기침이 지속되는 것이다.

증상은 마른기침이지만 밤에만 심해지는 기침을 야수(夜嗽)라고 한다.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며 잘 시간 활동할 동안에는 멀쩡하다가도 누워서 잘 때 기침이 심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위쪽으로 올라오는 열은 없지만 음이 심하게 하해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마른기침은 기수(氣嗽)라고 하는데,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과 유사하다. 목에 매와 씨 같은 것이 걸려 있는 느낌이 들지만 뱉어도 가래가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른기침을 하게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스트레스인 것을 생각하면 일맥상통한다.

찬바람에 기침이 심해지는 것을 풍수(風嗽)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을 겨울에 만 기침이 심한 경우에 속한다.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고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폐가 차갑고 건조한 체질인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치료법은 각 증상의 특징을 종합해 원인에 맞게 한약 처방을 하고 침구치료를 하는 것이다. 또한 기침이 아주 심하지 않지만 그 때문에 기력이 더 쇠할 수 있는 노약자나 어린 유아들의 경우 마른기침의 통치방이라 할 수 있는 경육교를 상시 복용하게 해 만성 기침으로 이행되지 않게 예방을 하고 있다.

마른기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폐와 기관지 건강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물이나 꿀차, 케모마일차, 생강차, 배나 도라지즙 등을 자주 마시면 목의 염증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마른기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폐와 기관지 건강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물이나 꿀차, 케모마일차, 생강차, 배나 도라지즙 등을 자주 마시면 목의 염증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기록돼 있다. 생각을 풀에 채워 차로 마시는 것으로 간편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갑기 후유증으로 마른기침이 발생해 만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호흡기 질환은 그 자체로도 환자들이 고통받게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전반적인 체력저하와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득이나 질병으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기침을 하면 체력이 더욱 저하돼 회복이 늦어지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른기침이 지나치게 오래 갈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염증이나 천식,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고, 원인 제거 후에도 기침이 남아 괴롭다면 그때는 기초체력을 끌어올려줄 보완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 고

'최순실 농단'에 무너져선 안 될 융·복합 산업



김 요 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드론은 작은 로봇 비행기로 레저에서 비롯하였는데 농사에도 쓰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발이 닿지 못하는 험한 곳의 촬영 등에도 쓰여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드론이나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가 산업에 접목되기 시작했고, 그 효과가 엄청나게 사람들은 느낀다. 현재 드론이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유지관리가 몹시 힘들다.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클라우드 발전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쓰도록 권장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권장에서 그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경영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다른 산업과 연계하기도 쉽다. 농사를 짓는다는 단순한 노동이 토양을 분석하여 알맞은 씨앗을 뿌리고, 적절한 농법을 활용하며,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까지도 설계할 수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이미 사물인터넷(IoT),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연결)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AMI망·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 인프라)과 힘을 보탠 사업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준다.

전기를 쓰지 않거나 어르신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119와 협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광산구의 시범사업은 공공기관(한전·광주시)의 클라우드(정보 구축)와 사물인터넷(정보 활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스마트밴드나 광센서를 개발하는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하고, 그러한 산업발전을 앞당겨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만든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은 우리 조상들이 천하의 근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여겼던 농사처럼 앞으로 우리 생활의 근본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융복합'이 생활과 산업화의 발판이란 뜻이다. 목숨 줄이 되어온 농사처럼 '융복합' 또한 우리 미래의 목숨 줄이다. 그러한 융복합을 기업(業者)으로 삼으려 한 '최순실 게이트'의 탐욕 앞에 우리 삶의 미래 발판인 융복합이 힘없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세월호 7시간' 머리 손질이나 하고 있었다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청와대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90분 동안 '울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도 하는 수 없이 이를 시인했다. "머리손질을 한 시간은 20여 분이 고 손질 중에도 사고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해명이 그것이다. 머리 손질하는데 걸린 시간만 정정한 것인데 뭔가 숨겨려는 것이 있는지, '아니다' '아니다' 부인만 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할 수 없이 인정하는 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가 가라앉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승객 구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강남의 유명 미용사 정 모 씨를 청와대로 불러 '울림머리'를 하는 데 90분 이상을 허비했다고 한다. 또 한 매체는 정 모 씨가 이날 오전에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하고,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앞둔 시각에 지사 청와대에 들어와 일부러 부스스한 머리를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한 '맹탕 청문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두 번째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별로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증인들의 모르쇠 작전 때문이었지만 어찌 됐든 '맹탕 청문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차 청문회 증인이었던 재벌 총수들은 기부 요청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강요는 없었다고 한결같이 말해 뇌물죄를 피해 나갔다. 어제 2차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도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서진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 "모른다"

"알 수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 답변만 거듭해 국민의 짜증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김 전 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세월호 사건을 인양하면 정부 부담이 커진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며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처럼 국민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핵심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은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몫은 특기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진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분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일본 드라마를 보면 가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이 라디오나 TV 아침 방송에서 소개된 그날의 '럭키 아이템'을 몸에 지니는 모습이다. TV에서는 별자리로 그날의 '운세'를 알려 주고 럭키 아이템을 소개하곤 한다. '붉은 빛깔의 물건' 등 색깔을 지정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물품을 알려 주기도 한다.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다가도 "따라 해도 손해 볼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른색이 럭키 아이템이라 한다면 뭘 양말을 신을 지 큰 행운을 거머쥘 때, 옷을 입을 때 푸른빛이 들어간 것을 신

럭키 아이템

타면 될 듯했다.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터 책 한 권과 '2달러 지폐'를 선물 받았다. 2달러 지폐가 '행운의 상징'으로 불리는 터라 은행이나 기업체 같은 곳에서 '선물용'으로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1928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최초로 2달러 지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불편함 때문에 널리 쓰이지는 못했고 대신 수 집음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데 이 2달러 지폐가 행운의 아이템이 된 사연은 이렇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금광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했던 숫자가

바로 '2'였다. 여기에 어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1960년 영화 '샹슈사회'에 같이 출연했던 프랭크 시나트라로부터 이 지폐를 선물 받은 후 모나코 왕비가 됐다. 그때부터 2달러 지폐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상징으로 사랑받게 됐다는 것이다. 언젠가 손에 넣었던 '럭키 박스'도 기억에 남는다. '럭키 박스'는 내용물을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예측 불가'가 매력이다. 당시 2만 원을 내고 7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긴 박스를 받았는데 웬

지 큰 행운을 거머쥘 때, 옷을 입을 때 푸른빛이 들어간 것을 신

타면 될 듯했다.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터 책 한 권과 '2달러 지폐'를 선물 받았다. 2달러 지폐가 '행운의 상징'으로 불리는 터라 은행이나 기업체 같은 곳에서 '선물용'으로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1928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최초로 2달러 지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불편함 때문에 널리 쓰이지는 못했고 대신 수 집음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데 이 2달러 지폐가 행운의 아이템이 된 사연은 이렇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금광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했던 숫자가

받는다는 건 이 딱딱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일 터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올 한 해 인연을 맺었던 이들에게 '럭키 아이템'을 선물하면 어떨까. 아이템은 스스로 정하기 나름이요, 꼭 물건이 아니어도 좋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 마디일 수도 있다. 더불어 자신을 위한 '행운의 아이템'도 하나쯤 가져다 줄 것 같다. 나를 위한 내년의 럭키 아이템을 선정해 벌써 행운을 받은 듯해 행복하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